

보도해명자료 (‘19. 4. 5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최근 원전발전량 감소는 원전 정비일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며, 배출권 할당량 감소 및 거래단가 상승, 전력수요 증가에 따른 발전량 증가 등으로 ‘18년 배출비용이 증가하였음

(조선일보 4.5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)

- 원전 발전량이 줄고, 화석연료 발전량이 늘어난 이유는 탈원전 정책 때문이며 이에 따라 ‘18년 배출권 비용이 증가했다는 기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.
- 4월 5일 조선일보 <화력발전 늘며 온실가스 초과배출... 탈원전 2년 만에 처리비용 4배로>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.

1. 기사내용

-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발전량은 2년새 17.6%감소한 반면, 석탄·LNG·석유 등 화석연료 발전량은 14.1% 늘어남
- ‘18년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발전사들이 탄소 배출권 구매에 지급해야하는 돈은 8022억원에 달함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- 최근 원전발전량 감소는 ‘16년부터 발견된 과거 부실시공에 따른 보정 조치로 원전 정비일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에너지전환 정책과 무관

* 원전 정비일수 : (‘15) 1,274일 → (‘16) 1,769일 → (‘17) 2,565일 → (‘18) 2,917일

* 원전 이용률 : (‘15) 85.3% → (‘16) 79.7% → (‘17) 71.2% → (‘18) 65.9%

- ‘18년 배출비용 증가는 ❶발전사의 온실가스 감축 유도를 위해 1차 계획기간(‘15~‘17) 대비 2차계획기간(‘18~‘20)의 발전부문 배출권 할당량 축소, ❷배출권 거래단가 지속 상승, ❸전력수요 증가에 따른 발전량 증가 등이 주요 원인

* 연도별 발전사 배출권 할당량(백만톤) : (‘16) 227 → (‘17) 241 → (‘18) 217

* 배출권 평균 거래단가(한국거래소, 원) : (‘16) 17,367 → (‘17) 21,131 → (‘18) 22,237

* 연도별 발전량(TWh) : (‘16) 540 → (‘17) 554 → (‘18) 570

※ 문의: 전력산업과 윤요한 과장, 김동환 사무관(044-203-5153)
전력시장과 박찬기 과장, 박영진 사무관(044-203-5174)
온실가스감축팀 박현종 팀장, 안준호 사무관(044-203-4236)